

「방약합편」 목판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 Research on the Woodblock Prints of *Bangyakhappyon*

朴 薰 平 (Park, Hun-Pyeo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일제강점기 경판 목판본 |
| 2. 초기 목판본 | 5. 결 론 |
| 3. 일제강점기 완판본 | <참고문헌> |

<초 록>

조사된 「方藥合編」 목판본은 총 20종으로 경판본이 15종, 완판본이 5종이다. 이들 판본은 대다수가 일부 수정을 거쳐 기존 책판을 재활용하거나 단순히 판권지만을 바꾸어 간행한 정도에 불과하다. 기본이 되는 책판은 4종인데 경판과 완판이 각각 2종이다. 판본의 전승은 美洞에서 간행된 「重訂方藥合編」과 冶洞에서 간행된 「證脈方藥合編」의 두 갈래로 널리 보급되었고, 西溪書舖에서 간행된 「新訂方藥合編」은 두 판본을 종합하는 성격이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미 「方藥合編」의 주요한 판본학적 성취는 이루어졌고, 이후 완판본은 증맥류 방약합편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方藥合編」의 목판본은 1910년까지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차차 신연활자본으로 대체되었다.

要語: 「방약합편」, 황도연, 방각본, 야동, 미동, 완판본

<ABSTRACT>

The 20 *Bangyakhappyon* woodblocks were examined, 15 of which were published in Hanyang (Gyeongseong) and 5 of which were published in Jeonju. Most of these editions have undergone some modifications to reuse existing printing plates or simply to change the copyright. The tradition of the editions was widely distributed in the two branches of *Jungjeoeng-Bangyakhappyon* published in Yadong and *Jeungmaek-Bangyakhappyon* published in Midong, and the *Sinjeoeng-Bangyakhappyon* published in Seogy-Seopo has the character of synthesizing the two editions. Prior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angyakhappyon*'s major plateological achievements had already been made, and later Jeonju's publications had a great impact on *Jeungmaek-Bangyakhappyon*'s nationwide popularity. *Bangyakhappyon*'s woodblock was still in the 1910s, but was soon replaced by a new lead type.

Key words: *Bangyakhappyon*, Hwang-Doyeon, blockprintedition, Yadong, Midong, Wanpanbon

*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학교실 박사과정 / 화순 마루요양병원 진료과장(lillipute@hanmail.net)
접수일: 2018년 5월 16일 최초심사일: 2018년 5월 31일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25일
서지학연구, 제74집, 163-185,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4.163]

1. 서론

『方藥合編』은 철종, 고종조의 議藥同參醫 黃道淵(1808.3.28.~1884.8.17.)이 저술하여 아들 黃泌秀가 1884년(고종 21) 초간한 이래 현대까지 주요한 한의서로서 여겨지며 간행되어 왔다. 그런데 초간본 이후 여러 간행처에서 지속적으로 수정판이 나오면서 복잡한 판본 전승 양상을 보인다. 특히 목판본은 신연활자본과 달리 간행 이력이 명확하지 않다.¹⁾ 이들 전승 계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판본의 수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에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고 이전에도 『方藥合編』에 대한 서지학적 접근은 있었다. 박선동은 원본 인용 문헌으로부터 『方藥合編』으로의 傳寫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와 특징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證脈方藥合編』만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지만 『方藥合編』 자체의 誤刻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²⁾ 오병건은 黃道淵의 의서 『醫方活套』(1869년)와 『證脈方藥合編』을 비교하여 처방별 차이, 순서 등에 상세하게 연구한 바 있다.³⁾ 안상우 등의 연구와 보고는 본격적인 『方藥合編』 판본 고찰로서 가치가 있다.⁴⁾ 근래 한기춘, 서정철, 최순화는 민족의학신문 기고를 통해 『方藥合編』에 관하여 다양한 서지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최초로 초간본을 발굴 보고하였다.⁵⁾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알려진 『方藥合編』 목판본 전승에 대한 전승과 간행 이력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기술되었다. 현존하는 『方藥合編』 목판본은 모두 방각본으로 조선 말 한양에서 간인된 초기 판본과 일제강점기 전주와 경성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나눌 수 있다. 일제강점기 경판본은 목판본과 신연활자본이 있지만 신연활자본은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본고는 여러 기관과 개인 소장자의 소장본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이다. 현재 알려진 판본들을 간행 시기별로 나누어 成書 순서대로 내용과 체제를 비교하여 선후를 밝히고 서로 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方藥合編』의 標題紙는 실제 본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간기의 경우 2개 있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까닭으로 標題紙나 간기로서 설정한 기존 판본명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었다. 본고에서 판본 이름을 붙이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지 제첨⁶⁾의 表題를 우선한다. 둘째, 제첨 표제가 같을 경우 간행처로 구분한다. 셋째, 제첨 표제와 간행처가

1) 일제강점기까지의 『方藥合編』 판본은 간인방식에 따라 목판본과 신연활자본 두 가지이다.

2) 박선동, “『방약합편』에서 나타난 전사과정에 따른 문제점분석 1,”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제5권 1호(1997), 33-49.; 박선동, “『방약합편』에서 나타난 전사과정에 따른 문제점분석 2,”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제6권 1호(1998), 63-85.

3) 오병건, “『방약합편』 중 활투침선에 관한 판본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8), 19-102.

4) 안상우 등, 『증보판 해외에서 찾아낸 우리 옛 의학책』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9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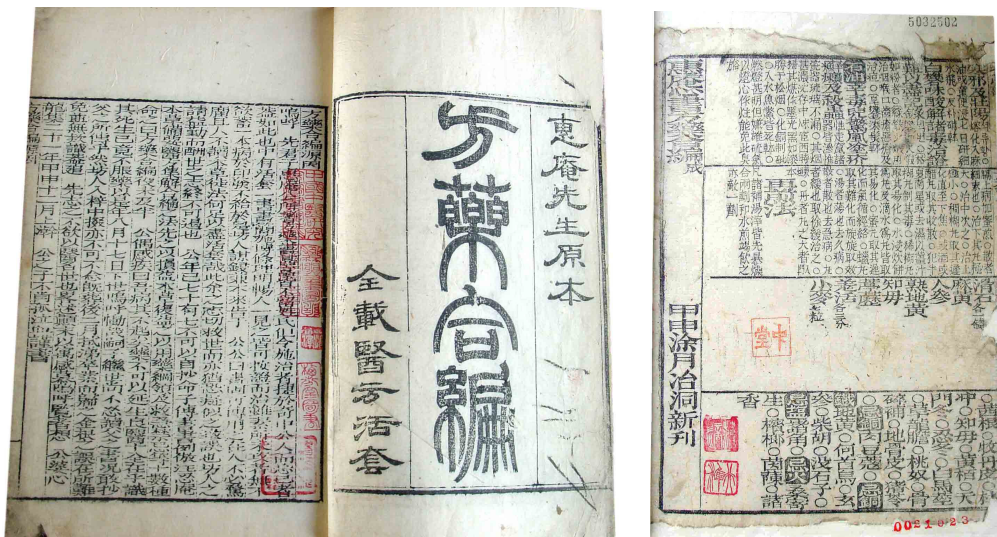
5) 한기춘 등, “『方藥合編』 線裝本の 板本에 따른 同異考,” 민족의학신문(2017. 7. 15)부터 “135년 만에 국내에서 발견된 『方藥合編』 甲申涂月 治洞新刊,” 민족의학신문(2018. 5. 12)까지 15번에 걸쳐 연재되었다. 민족의학신문사, 민족의학신문 웹사이트 활용.

6) 題籤. 表題를 종이 또는 비단 같은 쪽지에 써서 붙인 것. 標題紙는 앞표지와 본문 사이에 별도의 종이를 마련하여 저자, 서명, 간인연도를 기록한 것으로 書名穴로도 부른다. 최채기, 『고전적정리입문』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1), 210, 212. 본고에서도 表題와 標題는 구분되어 사용된다.

같은 경우 초간과 재간 등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治洞 初刊本 「方藥合編」에서 “方藥合編”은 제첩의 표제, 治洞은 간행처이다. 다만 이러한 판본 분류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는 분명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초기 목판본

2.1 治洞 初刊本 「方藥合編」(初1)⁷⁾



<사진 1> 治洞 初刊本 「方藥合編」(중의과학원 소장) 표제지와 간기⁸⁾

최초의 「방약합편」 판본으로 본문 말미의 간기 “甲申涂月 治洞新刊”으로 미루어보아 1884년(고종 21) 12월에 한양 治洞書坊에서 간행되었다. 표지 제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標題紙는 “方藥合編”이다. 실물은 중국에서 중의과학원 도서관, 연변민족의원 소장본이 안상우 등에 의해 확인되었고,⁹⁾ 최근 국내에서 한기춘 등에 의해 동국대소장본이 처음 알려졌다.¹⁰⁾ “甲申涂月 治洞新刊” 간기는 이 판본이 유일하다. 동국대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고서 D 610.951 황225b2)은 앞표지가

7) 본고에선 편의를 위해 판본의 일련 번호를 병기했는데 초기목판을 “初”, 완판본을 “完”, 일제강점기 경판 목판본을 “京”으로 붙이고 간행 순서대로 그 뒤에 “1, 2, 3”을 붙였고 내용의 변화 없이 간기와 표제지만 다른 경우 거기에 다시 “A, B, C” 순서대로 붙였다.

8) 사진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의학부 제공.

9) 안상우 등(2009), 93-97.

10) 한기춘 등, “135년 만에 국내에서 발견된 「方藥合編」 甲申涂月 治洞新刊,” 민족의학신문(2018. 5. 12).

탈락되는 등 중국 소장본에 비해 보존 상태가 불량하나 현재 알려진 국내 유일본이다.

2.2 治洞 再刊本 「方藥合編」(初2)



<사진 2> 治洞 再刊本 「方藥合編」(홍운표 소장) 표지, 표제지, 간기¹¹⁾

治洞 再刊本 「方藥合編」은 표지 제침이 존재한다(표제: 方藥合編 全). 표제지는 초간본과 동일하다. 본문 말미의 간기 “乙酉二月治洞新刊”으로 보아 1885년(고종 22) 2월에 한양 治洞書坊에서 간행되었다.

“乙酉二月治洞新刊” 刊記의 효시이다. 藥性歌 人夢의 훈을 기록함에 있어 “삼”으로 되어있는데 초간본은 “심”으로 되어있어 일부 교정 사례가 있다.¹²⁾ 이 둘은 별개의 판본이 아니며 잘못 판각된 부분에 국한하여 일부 補刻을 한 정도이다.¹³⁾ 誤刻이 이루어졌을 때 책판을 완전히 바꾸어 다시 새기는 일은 비용이 많이 들었기에, 이런 식의 補刻은 목판본에서 흔하다.¹⁴⁾ 또한 1884년 12월과 1885년 2월이라는 두 판본 간행 시기의 차이는 보각 위주로 진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후 같은 책판에서 <사진 9> 사례처럼 보재를 넣었다 탈락된 흔적이 발견되는 점도 근거이다.

11)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한글박물관 DB 이미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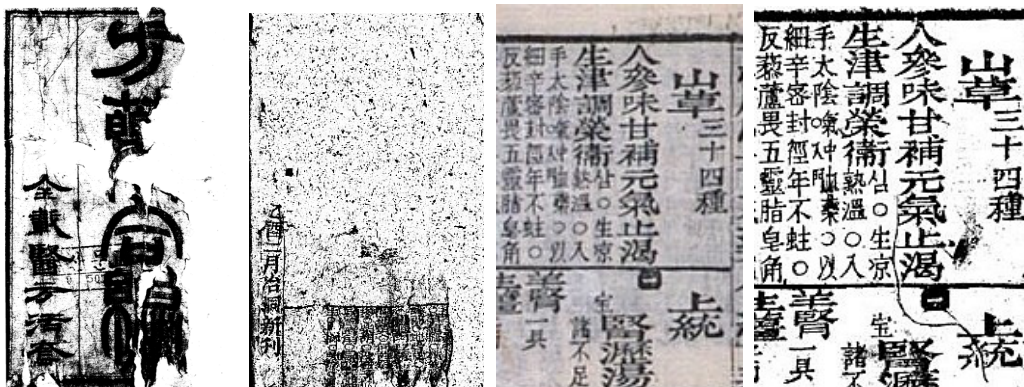
12) 초간본의 국내 소장 사실이 최근 알려졌으므로 다른 판본과의 전체 원문에 대한 교정 사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중국에 소장된 초간본의 경우 그 원문이 외부 비공개이다.

13) 일부 보각을 하고 책판을 재활용하는 것은 初3본, 初5본 등에서 반복된다. 이후 판본에 대한 논의 참조.

14) 판목의 일부를 드러내거나 삭제하고 고칠 내용을 새로 새겨 끼워 넣는 작업을 보각이라 한다. 여기서의 보각방식은 劃補刻이며 개별글자의 획 또는 부수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남권희, “목판과 지식문화,”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과주: 글향아리, 2014), 68-69.

2.3 治洞 三刊本 「方藥合編」(初3)

한기춘 등의 조사에 따르면 藥性歌 人蔘의 훈을 기록함에 있어 “삼”과 “심”으로 기록한 治洞 再刊本 「方藥合編」(初2)의 異本(初3)이 있다.¹⁵⁾ 논자의 견해로는 이 두 인쇄본의 내용을 비교하면 동일한 책판의 간인본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획의 글자체와 패선의 굵김마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初3본 이후의 야동서방 판본들(初5본 이후) 표기가 “심”인 것으로 보아 “심” 표기의 인쇄본이 더 후인본으로 추정된다. 또한 初3본이 初2본에 비해 일부 다른 패선의 굵김이 보이는 점도 간행이 더 늦다는 증거가 된다. 한기춘 등은 “삼”과 “심” 이외에도 24곳의 교정례를 조사했다.¹⁶⁾ 후일 治洞 三刊本 「方藥合編」의 책판이 治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5)에 다시 활용되는데 논자의 견해로는 이 판본은 1885년 8월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4)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治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5A)은 1885년 8월에 나오므로 初3본의 간인 시기는 1885년 2월에서 1887년 8월 사이로 추정된다.



<사진 3> 治洞 三刊本 「方藥合編」(국립중앙도서관) 표제지, 간기,¹⁷⁾ 藥性歌 “삼”(初2)과 “심”(初3)

2.4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4)

「石隱補遺方」 마지막 장의 간기 “乙酉中秋美洞新刊”으로 보아 1885년(고종 22) 8월에 한양 美洞 書坊에서 간행되었다.

간기 이외에도 治洞 三刊本 「方藥合編」과 비교하면 여러 변화가 있다. 첫째, 제점의 表題가 “方藥合編”에서 “重訂方藥合編”으로 바뀌었다. 둘째, 표제지가 “方藥合編”에서 “重訂方藥合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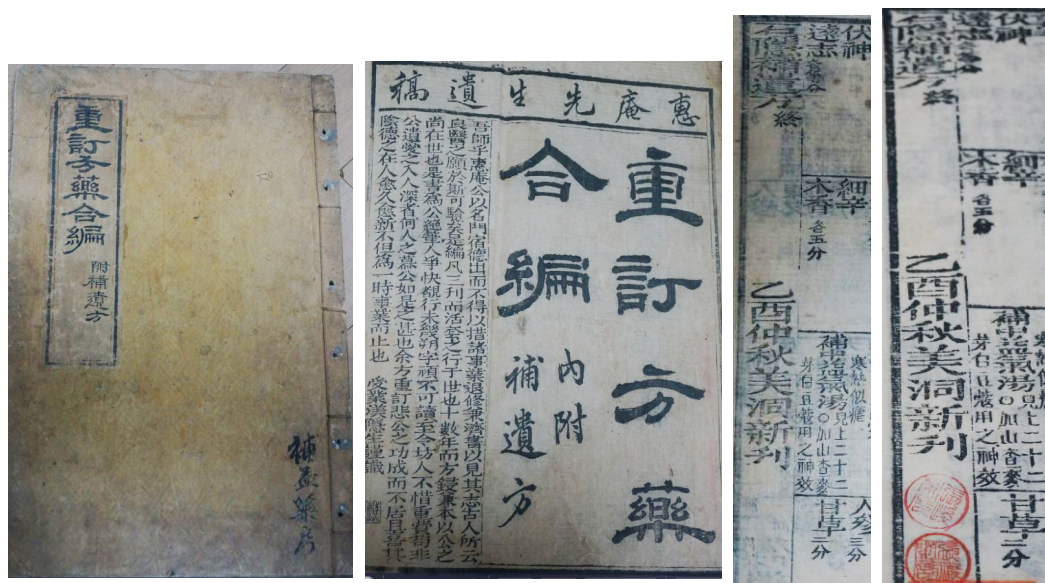
15) 한기춘 등, “「方藥合編」全載醫方活套의 板本에 대한 연구(1),” 민족의학신문(2017. 7. 29).

16) 한기춘 등, “「方藥合編」全載醫方活套의 板本에 대한 연구(3),” 민족의학신문(2017. 9. 2).

17)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종합합목DB 이미지 활용. 청구기호: 의산古7650-8.

으로 바뀌었다. 표제에 대한 설명도 “惠庵先生原本”에서 “惠庵先生遺稿”로 바뀌었다. 셋째, 본문 말미에 「石隱補遺方」, 「輸症霍亂自辛巳以後集驗方」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넷째, 「活套鍼線」 마지막 장에 ‘新增補遺十九方’ 기록이 추가되었다. 新增補遺十九方は 바로 「石隱補遺方」에 수록된 처방들을 지칭한다. 다섯째, 刊記 위치가 본문 마지막 장에서 「石隱補遺方」 마지막 장으로 옮겼다. 여섯째, 誤刻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했다. 한기춘 등은 이 판본의 올바른 교정례와¹⁸⁾ 그릇된 판각례를 제시한 바 있다.¹⁹⁾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은 초인된 이후 오랜 시간 간행에 쓰이면서 초인본과 후기 인쇄본에 약간의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사진 4>의 간기를 비교하면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배선의 연속성이 약화된다. 한기춘 등이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의 藥性歌 目錄에서 “山草”의 종수가 34종에서 43종으로 변천되는 과정²⁰⁾과 「石隱補遺方」 火門 黃連湯의 “舌硬”이 훼손되는 과정²¹⁾을 분석했는데, 이 또한 동일 책판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보각과 훼손이 나타난 사례이다.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4)은 美洞書坊 간행의 최초 판본으로 “乙酉中秋美洞新刊” 간기로 서도 최초 판본이다. 즉 중정류 방약합편의 효시이다. 표제지 글에서 “是編凡三刊而活套之行于世也”는 기존에 治洞書坊에서 간행된 初1, 初2, 初3 세 판본의 간행을 지칭한다.



<사진 4>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개인 소장) 표지, 표제지, 간기

18) 한기춘 등, “「重訂方藥合編」의 올바른 교정례,” 민족의학신문(2017. 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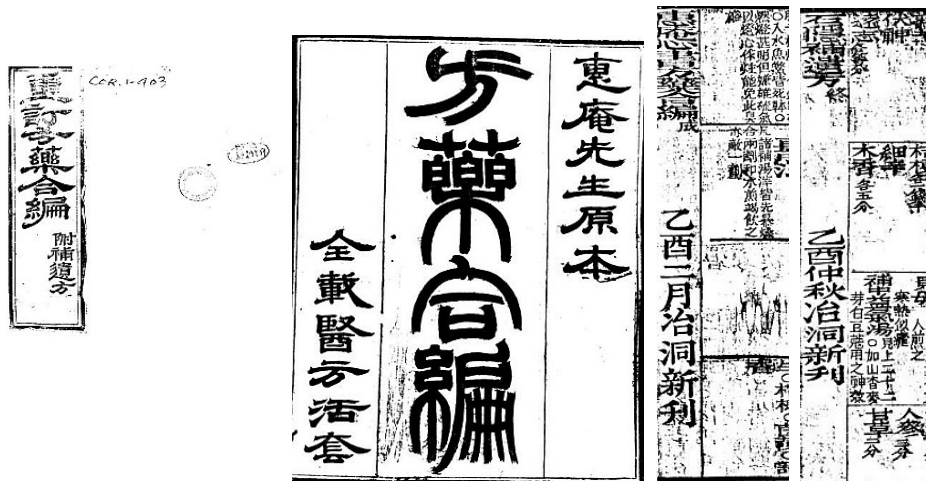
19) 한기춘 등, “「重訂方藥合編」의 그릇된 판각례,” 민족의학신문(2017. 11. 25).

20) 한기춘 등, “「重訂方藥合編」과 美洞新刊 계열의 板本에 대한 연구(1),” 민족의학신문(2017. 9. 16).

21) 한기춘 등, “「重訂方藥合編」과 美洞新刊 계열의 板本에 대한 연구(2),” 민족의학신문(2017. 9. 30).

2.5 治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5A, 初5B)

「石隱補遺方」 마지막 장의 간기 “乙酉中秋治洞新刊”으로 미루어보아 1885년(고종 22) 8월에 한양 治洞書坊에서 간행되었다.



<사진 5> 初5A본(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소장) 표지, 표제지, 간기(22)



<사진 6> 初5B본(개인 소장) 표제지, 간기

治洞 刊本 「重訂方藥合編」은 제첨 표제가 “重訂方藥合編”으로 되어있고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4)과 내용 순서는 동일하다. 다만 둘 사이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표제지는 治洞 三刊本 「方藥合編」에서 보이는 “方藥合編”을 그대로 사용한다. 둘째, 刊記가 다르다. 간기에 따라

22)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종합합목DB 이미지 활용. 「重訂方藥合編內附補遺方」 표제.

異本이 있다.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원 소장본(初5A)은 간기가 2개인데 「石隱補遺方」 마지막 장의 “乙酉中秋治洞新刊”과 본문 말미의 “乙酉二月治洞新刊”이다. 한기춘 소장본(初5B)은²³⁾ 간기가 1개인데 「石隱補遺方」 마지막 장의 “乙酉中秋治洞新刊” 간기만 존재한다.²⁴⁾ 셋째, 「活套鍼線」 마지막 장에 “新增補遺十九方” 기록이 없다.

그런데 治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5A)을 治洞 三刊本 「方藥合編」과 비교하면 새로 추가된 「石隱補遺方」, 「輸症霍亂自辛巳以後集驗方」을 제외하면 동일책판을 사용했다. 즉 美洞書坊에서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4)이 간행되자 이를 모방하여 「石隱補遺方」, 「輸症霍亂自辛巳以後集驗方」의 6면만을 새로 판각하여 추가하고, 제침을 바꾸어 治洞書坊에서 간행한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乙酉二月治洞新刊” 간기가 그대로 남았으며, 美洞書坊의 초간 시기와 큰 차이 없이 간행할 수 있었다. 한기춘 소장본(初5B)은 별 변화 없이 본문 마지막 장의 “乙酉二月治洞新刊”만 없애고 보각하여²⁵⁾ 간행한 판본으로 인쇄 시기상 初5A본보다 후기 판본이다.

治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5A)은 “乙酉中秋治洞新刊” 간기의 최초 판본이다.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4)과 비교할 때 그 영향을 받은 점이 분명하므로 증정류 방약합편으로는 두 번째 판본이다.

2.6 治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6A, 初6B, 初6C)

治洞 刊本 「證脈方藥合編」은 간기가 기존 治洞 刊本 「重訂方藥合編」과 동일하여 간기로서 간행 연대를 추정할 수 없다. 추가된 「新增證脈」 첫 면의 “丁亥年亥月”을 근거로 1887년(고종 24) 9월 이후에 한양 治洞書坊 간행으로 추정된다.

治洞 刊本 「證脈方藥合編」은 몇 가지 점을 제외하면 治洞 刊本 「重訂方藥合編」의 책판을 상당 부분 재활용하여 간인한 판본이다. 차이라면 첫째, 「新增證脈」 내용 10면이 추가되었다. 둘째, 표제지가 “方藥合編”에서 “證脈方藥合編”으로 바뀌었다. 셋째, 제침 표제가 “重訂方藥合編”에서 “證脈方藥合編”으로 바뀌었다. 또한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의 표제지와 비교하면 “西齊”라는 印文이 “樹德在滋”와 “惠庵”으로 바뀌었다.

표제지와 간기에 따라 3종의 異本이 존재한다. 初6A본은 표제지가 “證脈方藥合編”이면서 간기가 2개인 판본이다. 初6B본은 표제지가 2개이면서 간기가 2개인 판본이다. 표제지는 처음에 “方藥合編”이고, 말미에 “證脈方藥合編”이 있다. 이상 두 판본의 간기는 「石隱補遺方」 마지막 장의 “乙酉中秋治洞新刊”과 본문 말미의 “乙酉二月治洞新刊”으로 동일하다. 初6C본은 표제지가 “證脈方藥

23) 한기춘 소장본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이외에도 개인 소장 2책이 더 알려져 있다.

24) 한기춘 등, “「方藥合編」全載醫方活套의 板本에 대한 연구(1),” 민족의학신문(2017. 7. 29).

25) 남권희(2014), 69. 여기서의 보각방식은 字補刻으로 교정 후 글자 단위로 잘못된 부분을 파내어 제거한 후 다른 나무로 다시 새겨 끼워 넣는다.

合編”이면서 간기가 1개인 판본이다. 간기는 「石隱補遺方」 마지막 장의 “乙酉中秋治洞新刊”이다. 각 판본의 소장처는 初6A본은 개인소장, 初6B본은 미국 버클리대학교 아사미문고, 初6C본은 국립중앙도서관²⁶⁾ 소장본이 알려져 있다.²⁷⁾



<사진 7> 初6A본(개인 소장) 표제지, 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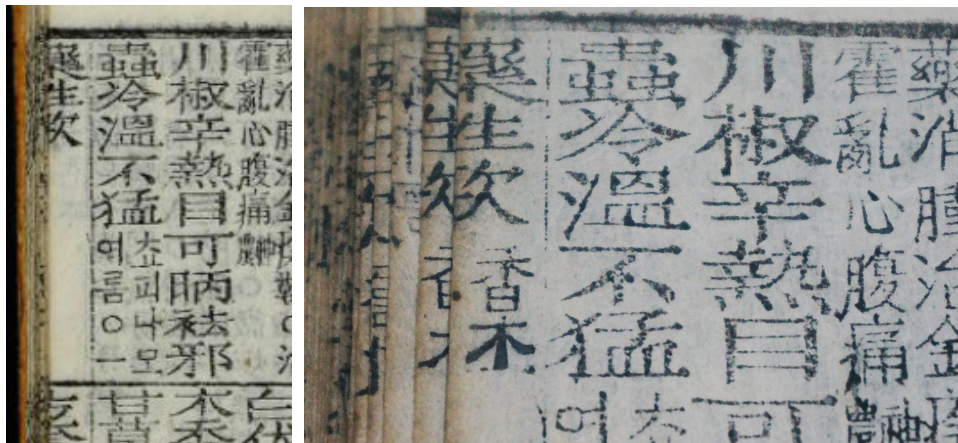
<사진 8> 初6B본(버클리대 소장) 표지, 표제지, 간기

그렇다면 이들 세 판본 간행시기의 선후는 어떻게 될까. 아사미문고본(初6B본)은 내용 순서가 다른 두 판본과 차이가 있다. “證脈方藥合編” 표제지가 가장 뒤에 있고, 「新增證脈」 순서가 「醫方法

26)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DB 활용. 청구기호: 古 7651-65-132, 古朝68-56-35.

2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DB 원문이용.

套序文」뒤가 아닌「活套鍼線」뒤이다. 그렇지만 본문 내용상 나머지 두 간인본과 동일 책판이다. 패선들의 선명도를 비교하면 初6A본, 初6B본, 初6C본 순서이다. 무엇보다도 1918년에 간행된 匯東書館 刊本「證脈方藥合編」(京5)이 初6C본과 같은 책판(같은 간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장 후대의 간인본이라 생각된다.



<사진 9> 初6B본과 初6A본 藥性歌 川椒 부분

한기춘 등은 藥性歌 川椒 부분의 版心에서 治洞 三刊本「方藥合編」까지 존재하던 “香木”이 이후 판본에서 누락되었음을 지적했다.²⁸⁾ <사진 9>를 보면 初6A본의 “香木” 위아래로 희미한 패선이 보인다. 즉 보각하여 판재를 끼워 넣은 흔적이 나타난다. 보각했던 판재가 탈락됨으로서 이후 판본에서 해당내용이 누락되었다.

初6A본은 표지 내면에 “甲午三月日一百四十葉買得”이라는 기록이 있다. 엽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갑오년은 1894년이다. 첫 매입자가 남긴 기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판본이 1894년 이전에 간인되었다는 증거이다. 治洞 初刊本「方藥合編」의 간기를 없애고, 治洞 再刊本「方藥合編」에서 간기 “乙酉二月治洞新刊”를 보각하는 방식에 있어 기존 간기를 파내고 다른 나무에 새겨 끼워 넣는 방식으로 행했다면, 이후에도 간기의 탈락과 추가가 용이했을 것이다. 기존 治洞 刊本「重訂方藥合編」(初5B)에서 탈락되었던 “乙酉二月治洞新刊” 간기를 다시 추가했다가 없앤 이유는 알 수 없다.

28) 한기춘 등, “『方藥合編』 全載醫方活套의 板本에 대한 연구(1),” 민족의학신문(2017. 7. 29). 이런 차이는 보각하여 끼워 넣은 목판재가 탈락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진 10> 初6C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표지, 표제지, 간기

2.7 美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7)

간기는 「石隱補遺方」 마지막 장의 “乙酉中秋美洞新刊”이다. 治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6A)이 간행된 뒤에 그 영향을 받아 한양 美洞書坊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4)에 사용된 책판을 재활용하여 간인되었지만 표제지가 바뀌고, 「新增證脈」이 「醫方活套 序文」 뒤에 새롭게 판각되어 추가되었다. 治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6A)보다 美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7)이 더 후기 간인본이다. 기관 소장처는 연세대 학술정보원, 경상대 도서관이 알려져 있지만 증맥류 治洞 계열만큼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 초인본에는 없던 오류도 일부 보인다.²⁹⁾ 동일 책판이 계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한기춘 등이 행한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의 藥性歌 目錄에서 “山草”의 종수가 34종에서 43종으로 변천되는 분석을 보면³⁰⁾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의 후쇄본 중에 美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7)보다 더 늦은 시기의 인쇄본도 보인다. 동일 책판이므로 美洞 刊本 「證脈方藥合編」을 간인한 이후에 그 판본인쇄를 그만두고 이전 판본인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을 다시 간인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같은 美洞계열에서도 증맥류가 증정류보다 널리 보급되지 못한 이유가 된다. 증맥류에서 治洞書房만큼의 인기를 누리지 못했을까. 아니면 증맥류 간행을 위해 새로 판각한 책판들이 소실되었을까. 가설만 제기될 뿐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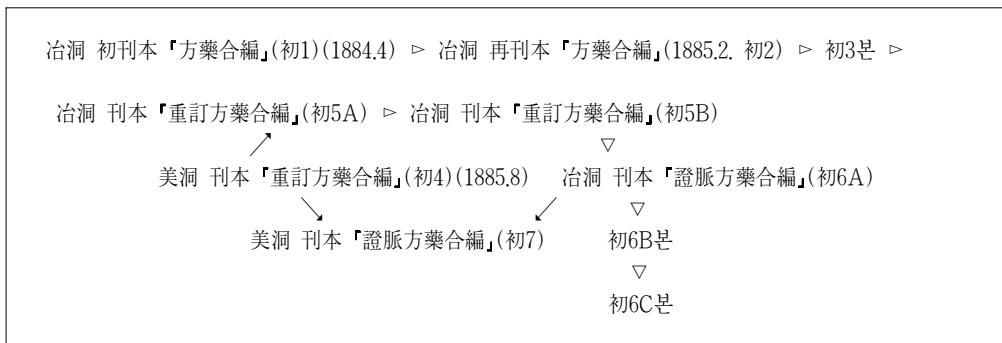
29) 한기춘 등, “「方藥合編」全載醫方活套의 板本에 대한 연구(1),” 민족의학신문(2017. 7. 29).

30) 한기춘 등, “「重訂方藥合編」과 美洞新刊 계열의 板本에 대한 연구(1),” 민족의학신문(2017. 9. 16).

2.8 초기 목판본의 특징

현재 알려진 일제강점기 이전 『方藥合編』 목판본은 10종이다. 1884년(고종 21) 12월에 한양 治洞書坊에서 초간본이 나온 이래 보각을 거치면서 美洞書坊의 중정류 방약합편과 治洞書坊의 증맥류 방약합편이 간행되어 방약합편 판본 계열의 큰 틀은 이 시기에 이미 형성되었다. 이 시기 판본은 10종이지만 초간본의 책판을 제외하면 실제 완전히 개각된 판본은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 1종에 불과하다. 治洞書坊 간본의 경우 계속적인 보각이 이루어지는 점이 독특하다.

<표 1> 『方藥合編』 초기 목판본 전승추이³¹⁾



<표 2> 일제강점기 이전 『方藥合編』 목판본 일람

판본명	간행시기	刊記	표제지
治洞 初刊本 『方藥合編』(初1)	1884.4.	甲申涂月治洞新刊	方藥合編
治洞 再刊本 『方藥合編』(初2)	1885.2.	乙酉二月治洞新刊	方藥合編
治洞 三刊本 『方藥合編』(初3)	未詳	乙酉二月治洞新刊	方藥合編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4)	1885.8.	乙酉中秋美洞新刊	重訂方藥合編
治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5A)	未詳	乙酉二月治洞新刊 乙酉中秋治洞新刊	方藥合編
治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5B)	未詳	乙酉中秋治洞新刊	方藥合編
治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6A)	1887.9. 이후	乙酉二月治洞新刊 乙酉中秋治洞新刊	證脈方藥合編
治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6B)	未詳	乙酉二月治洞新刊 乙酉中秋治洞新刊	方藥合編 證脈方藥合編
治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6C)	未詳	乙酉中秋治洞新刊	證脈方藥合編
美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7)	未詳	乙酉中秋美洞新刊	證脈方藥合編

31) 표에서 “▷” 표시는 기존 책판을 보각한 관계, “→” 표시는 내용에 영향을 준 관계이다.

3. 일제강점기 완판본

3.1 西溪書舖 刊本 「證脈方藥合編」(完1)

내용상 증맥류 방약합편에 속하며³²⁾ 제첩(표제: 證脈方藥合編)과 판권지가 존재한다. 판권지에 따르면 1911년(明治 44) 8월 22일 전주 서계서포³³⁾에서 간행되었고, 발행자는 卓鐘佶, 인쇄 겸 발행자는 全州郡 府西 四契에 거주하는 梁元仲이다. 「石隱補遺方」 마지막 장에 위치한 간기는 “院山新刊”인데 이 간기로는 최초 간본이다. 류탁일에 따르면 卓鐘佶(1883~1947)은 完山卓氏 30대손으로 서계서포를 경영하다 그 후 업종을 바꾸어 갓신 제조업에 종사했는데, 이 두 가지 업은 선대에도 종사했던 일이었다.³⁴⁾ 간기의 “院山”이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른 완판본에서 “院山”을 사용한 사례가 「文字類輯」(1903년)의 “癸卯仲夏院山開刊”에서 발견된다.³⁵⁾



<사진 11> 西溪書舖 刊本 「證脈方藥合編」(개인 소장) 표지, 표제지, 판권지

판권지는 일제의 출판법(1909년 2월)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서계서포 간본은 최초의 판권지(1911년) 이전인 1872~1910년에도 간행되었으므로,³⁶⁾ 이 판본이 판각된 시기는 1911년 8월 이전으로만 추정

32) 본고에서 증맥류 방약합편이라 함은 야동서방에서 간행된 「證脈方藥合編」, 중정류 방약합편이라 함은 미동서방에서 간행된 「重訂方藥合編」의 전승 계열에 속하는 방약합편 판본을 말한다. 판본 특징은 2.4와 2.6 참조.

33) 서계서포의 위치는 현재번지로는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2가 70번지. 다가서포의 위치는 현재번지로는 다가동 2가 123번지로 서로 가깝다. 전주문화재단, 「완판본과 사람들」(전주: 전주문화재단, 2012), 31, 34.

34)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서울: 학문사, 1988), 43-61.

35) 류탁일(1988),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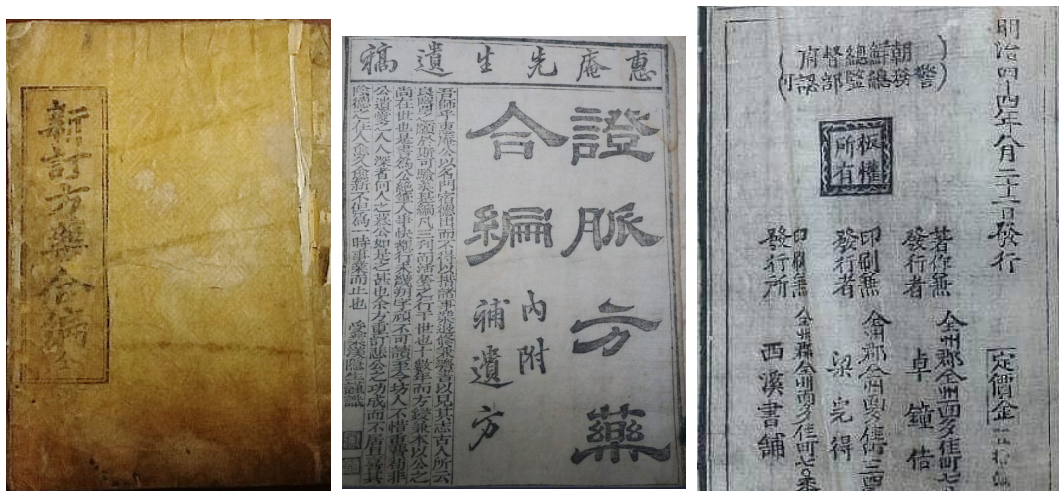
36) 류탁일(1988), 50.

될 뿐, 1911년경으로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시기상 완판본 『방약합편』 중에서 가장 연대가 앞선 판본임은 확실하다. 내용의 탈락이 많은데 예를 들어 「輸症霍亂自辛巳以後集驗方」 마지막의 禁忌 내용이 없다.

3.2 西溪書舖 刊本 「新訂方藥合編」(完2)

내용상 증맥류 방약합편에 속하며 제침(표제: 新訂方藥合編)과 판권지가 존재한다. 판권지에 따르면 1911년 8월 22일 전주 서계서포에서 간행되었고, 발행자는 卓鍾估, 인쇄 겸 발행자는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에 거주하는 梁完得이다. 「石隱補遺方」 마지막 장에 위치한 간기는 “里洞新刊”인데 이 간기로는 최초 간본이다.

류탁일에 따르면 梁完得은 南原梁氏로 西溪書舖 刊本 「證脈方藥合編」(完1)의 인쇄자인 梁元仲의 아들이다.³⁷⁾ 多佳町은 1914년 12월 6일 전라북도 고시에 의해 府西面 4계와 3계 일부가 합쳐져 만들어졌으므로³⁸⁾ 판권지 내용처럼 1911년 당시에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판본은 1914년 12월 이후에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계서포는 1916년 이후에는 다가서포에 합쳐졌으므로 이 판본의 간행 시기는 1915년경으로 추정된다. 다만 책판의 판각 시기는 이보다 앞설 수 있다.



<사진 12> 西溪書舖 刊本 「新訂方藥合編」(개인 소장) 표지, 표제지, 판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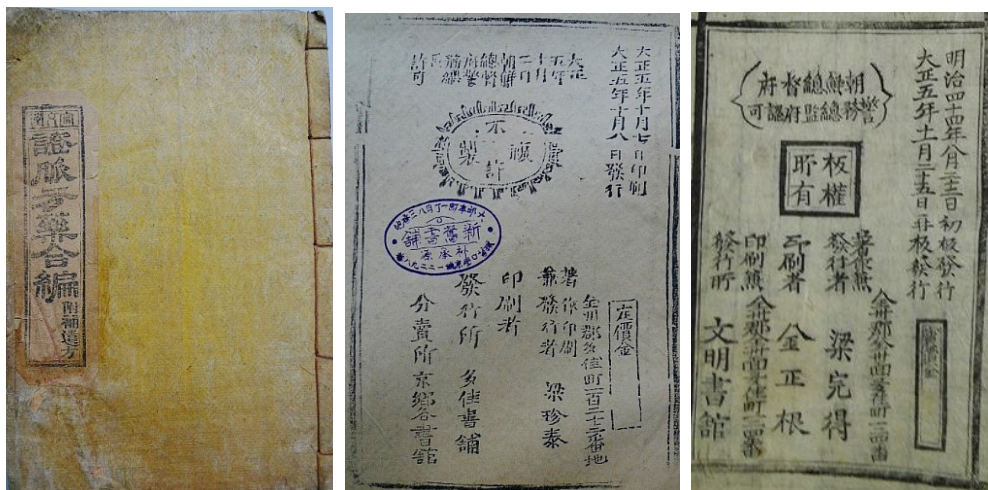
37) 류탁일(1988), 53.

38) 강혜영, “20세기 전반기의 전주지방 서적 발행 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1집(2008. 12), 94-95.

3.3 多佳書舖 刊本 「證脈方藥合編」(完3)

내용상 증맥류 방약합편에 속하며 제침(표제: 證脈方藥合編)과 판권지가 존재한다. 판권지에 따르면 1916년(大正 4) 10월 8일 전주 다가서포에서 간행되었고, 발행자는 梁珍泰이고, 간기는 “院山新刊”이다. 西溪書舖 刊本 「證脈方藥合編」과 같은 책판을 사용하여 인쇄되었고, 표지 제침(내용은 동일)과 판권지만 다르다.

류탁일에 따르면 梁珍泰(1869~1933)는 梁元仲의 동생으로, 서계서포는 1911년 이후 1916년 사이에 판주였던 卓鐘佺이 轉業한 뒤에 다가서포에 합쳐졌다.³⁹⁾



<사진 13> 多佳書舖 刊本 「證脈方藥合編」(개인 소장) 표지와 판권지(左),
文明書館 刊本 「新訂方藥合編」(개인 소장) 판권지(右)

3.4 文明書館 刊本 「新訂方藥合編」(完4)

내용상 증맥류 방약합편에 속하며 판권지가 존재한다. 현존본은 표지 제침이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표지의 “新訂方藥合編” 기록과 전후 같은 책판의 완판본을 고려하면 존재했을 것이다. 판권지에 따르면 1911년 8월 22일에 초판이 1916년 11월 25일에 재판이 발행되었다. 발행자는 梁完得, 인쇄자는 金正七이다. 간기는 “里洞新刊”이다.

1911년에 문명서관에서 간행된 다른 책들의 판권에 의하면 발행자는 卓鐘佺, 인쇄 겸 발행자는 梁完得으로 되어 있어 이 시기 卓鐘佺은 서계서포와 문명서관 운영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⁰⁾

39) 류탁일(1988), 53.

40) 강혜영(2008), 94-95.

1916년 문명서관의 운영은 梁元仲의 아들인 梁完得이 맡고 있었다. 강혜영에 따르면 1916년 문명서관 간본의 판권지에서는 版次 사항이 다른 서포들과는 달리 ‘재판 발행’으로 나타나며, 문명서관의 발행본 중 9종이 서계서포 간본과 겹친다.⁴¹⁾ 『方藥合編』 간본도 그러한 사례이다. 문명서관 간본으로 1911년 간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초판본 내역은 서계서포 간본의 것이다. 文明書館 刊本 『新訂方藥合編』의 실제 간행 시기는 판권지의 재판 기재시기로 추정된다.

3.5 梁冊房 刊本 『新訂方藥合編』(完5)

내용상 증맥류 방약합편에 속하며 제침(표제: 新訂方藥合編)과 판권지가 존재한다. 판권지에 따르면 1932년 10월 18일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1932년 11월 5일 발행되었다. 발행자는 全州郡 龍進面 牙中里의 梁承昆, 인쇄자는 全州郡 雨林面 龍伏里의 梁昌朝이다. 간기는 “里洞新刊”으로 西溪書舖 刊本 『新訂方藥合編』과 동일한 책판 간인본이다. 류탁일에 따르면 梁承昆은 梁珍泰의 養子이며 1932-1937년 사이에 양책방을 개점해 운영하였는데 주소지인 龍進面 牙中里는 그의 처가가 있던 동네이다.⁴²⁾ 이 판본은 시기상 완판본 『방약합편』 중에서 가장 후대의 판본이며, 전체 『방약합편』 목판본 중에서도 그 시기가 가장 후대이다. 기관 소장처는 국립중앙도서관(청구기호: 古7650-27),⁴³⁾ 경북대 도서관⁴⁴⁾이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실물 조사했다.

3.6 완판본의 특징

현재 알려진 『方藥合編』 완판본은 5종이며 梁元仲에 의해 판각된 院山新刊 계열과 梁完得에 의해 판각된 里洞新刊 계열로 나뉜다. 두 계열이 모두 증맥류 방약합편에 속하므로 증정류 방약합편은 완판본으로 간행된 적이 없다. 경판본의 경우 후대에까지 증정류가 간행되므로 이는 완판본만의 특색이다. 결과적으로 완판본은 일제강점기 증맥류 방약합편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현존 완판본의 판매서포인을 보면 대구 재전당서포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이 발견된다. 판본 내용상으로 西溪書舖 刊本 『新訂方藥合編』은 일부 誤刻에도 불구하고 治洞과 美洞 계열을 종합하여 반영한 공로가 있다.

서계서포에서 간행한 2종의 책판을 이후 다른 서포에서 다시 활용하여 인쇄하였으므로 판본 특징은 2종만 고찰 대상이다. 西溪書舖 刊本 『證脈方藥合編』(院山新刊)은 治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6)을 母本으로 삼아 판각된 판본으로 둘 사이에는 刊記 외에 추가된 내용이 없으며 일부 잘못된

41) 강혜영(2008),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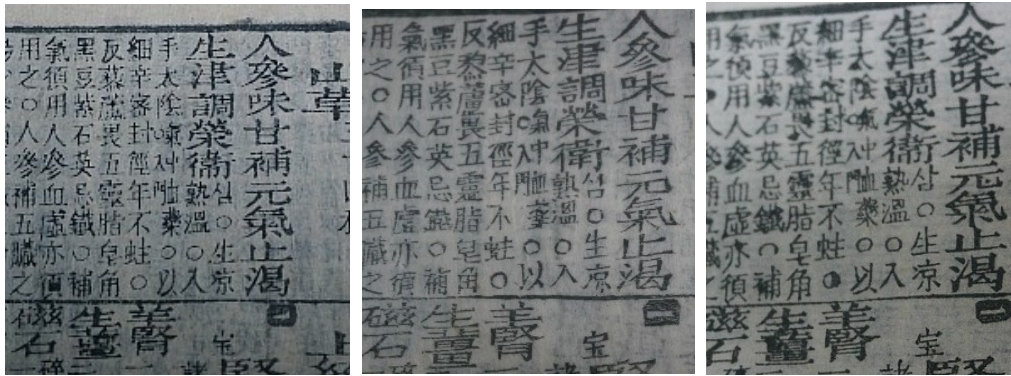
42) 류탁일(1988), 53, 60, 61.

43)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에는 저작자가 梁永坤으로 오기.

44) 경북대중앙도서관의 서지에는 출판사가 梁門房으로 오기.

오류나 탈락 외에는 차이점이 없다. 탈락은 「輸症霍亂自辛巳以後集驗方」에 두드러진다.

西溪書舖 刊本 「新訂方藥合編」(里洞新刊)은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4)과 初6본 두 판본에게서 영향 받았다. 美洞 계열의 영향은 「石隱補遺方」에 수록된 延齡固本丹의 약제순서를 들 수 있다.⁴⁵⁾ 그러나 美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7)의 오류를 답습하지는 않으므로⁴⁶⁾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4)이 저본으로 추정된다. 治洞 계열의 영향은 「活套鍼線」 마지막 장에 「新增補遺十九方」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⁴⁷⁾ 이와 별개로 일부 이전의 판본과 차이도 있는데 예를 들어 藥性歌 人蔘의 훈을 “삼”으로 표기하였다(<사진 14> 참조. 원래는 “심”). 앞선 시기 「濟衆新編」 목판에서도 人蔘의 훈을 “삼”과 “심”으로 판각한 異本이 존재하고 있어 19세기에 이미 두 가지 음이 병용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단순히 기존 오류를 교정한 사례일 수도 있다(初2본 참조).



<사진 14> 人蔘 훈의 비교(左: 初6A, 中: 完1, 右: 完2) “삼”, “심”, “삼”

<표 3> 「方藥合編」 완판본 일람

판본명	간행시기	刊記	간행처	저작자
西溪書舖 刊本 「證脈方藥合編」(完1)	1911. 8.	院山新刊	西溪書舖	卓鐘佶
西溪書舖 刊本 「新訂方藥合編」(完2)	1915년경	里洞新刊	西溪書舖	卓鐘佶
多佳書舖 刊本 「證脈方藥合編」(完3)	1916. 10.	院山新刊	多佳書舖	梁珍泰
文明書館 刊本 「新訂方藥合編」(完4)	1916. 11.	里洞新刊	文明書館	梁完得
梁册房 刊本 「新訂方藥合編」(完5)	1932. 11.	里洞新刊	梁册房	梁承昆

45) 柏子仁, 覆盆子, 澤瀉의 순서가 다른 계열에서는 柏子仁, 川椒, 地骨皮의 순서이다. 한기춘, 서정철, 최순화, “「方藥合編」線裝本の 板本에 따른 同異考,” 민족의학신문(2017. 7. 15).

46) 예를 들어 藥性歌 目錄의 山草 중수가 34종이다. 初7본은 43종으로 되어 있다.

47) “新增補遺十九方” 내용이 초기목판본에서 야동서방 간본은 모두 없고 미동서방 간본은 모두 있다. 완판본의 경우 모두 없다.

4. 일제강점기 경판 목판본

4.1 紙物書冊舖 刊本 『證脈方藥合編』(京1)

내용상 증맥류 방약합편에 속하며 판권지가 있다. 판권지에 따르면 1913년(大正 2) 경성 紙物書冊舖에서 간행되었다.⁴⁸⁾ 희소한 판본으로 논자는 고서경매에 출품된 1책을 본 적이 있으나 원문 검토를 하지 못해서 治洞 계열인지 美洞 계열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美洞 刊本 『證脈方藥合編』의 책판은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에 이미 활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판본은 治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6C)과 동일 책판으로 추정된다. 현재 소장처는 알려져 있지 않다. 紙物書冊舖는 李鍾星이 운영하던 서포이다.

4.2 東美書市 刊本 『證脈方藥合編』(京2)

내용상 증맥류 방약합편에 속하며 판권지가 있다. 판권지에 따르면 1915년(大正 4) 3월 17일 경성 東美書市에서 간행되었다. 발행자는 李容漢, 인쇄자는 金福女이다(<사진 15> 참조). 희소한 판본으로 안상우 등의 조사에 의해 중국 중의과학원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刊記는 “乙酉中秋治洞新刊”으로 治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6C)의 책판을 재활용하였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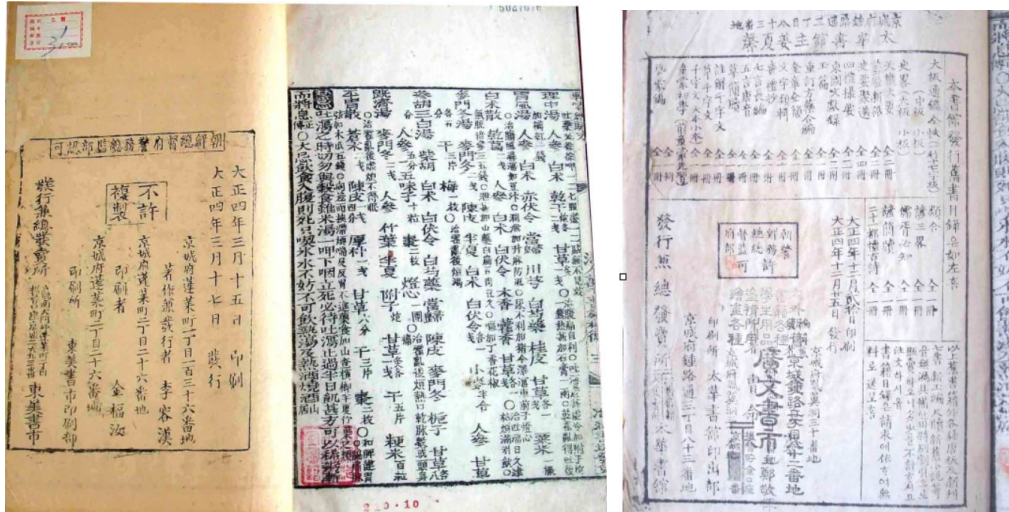
4.3 太華書館 刊本 『重訂方藥合編』(京3)

내용상 증정류 방약합편에 속하며 판권지가 있다. 판권지에 따르면 1915년(大正 4) 12월 25일 경성 太華書館에서 간행되었다. 저자 겸 발행자는 姜夏馨, 인쇄자는 曹命天이다. 희소한 판본으로 안상우 등의 조사에 의해 중국 중의과학원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⁵⁰⁾ 국내 소장처는 경희대 도서관이 알려져 있다(청구기호: 古 615.5 강92ㄴ). 刊記는 “乙酉中秋美洞新刊”으로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4)의 책판을 재활용하였다. 이는 美洞 刊本 『證脈方藥合編』보다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의 후쇄본 간행이 더 늦다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48) 경매 당시 기록해 둔 논자의 필기에는 1914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물서책포는 1913년 간본만이 현존하므로 필기오류로 인식되어 1913년으로 수정하였다. 추후 실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9) 안상우 등(2009), 103-104. 東美書市 刊本을 미동계열로 분류하였으나 사진 상 판심제에 治洞書房 보임.

50) 안상우 등(2009), 102.



<사진 15> 東美書市刊本 「證脈方藥合編」, 太華書館刊本 「重訂方藥合編」(중의과학원 소장) 판권지⁵¹⁾

4.4 韓南書林 刊本 「重訂方藥合編」(京4)



<사진 16> 韓南書林 刊本 「重訂方藥合編」(개인 소장)의 표지, 판권지, 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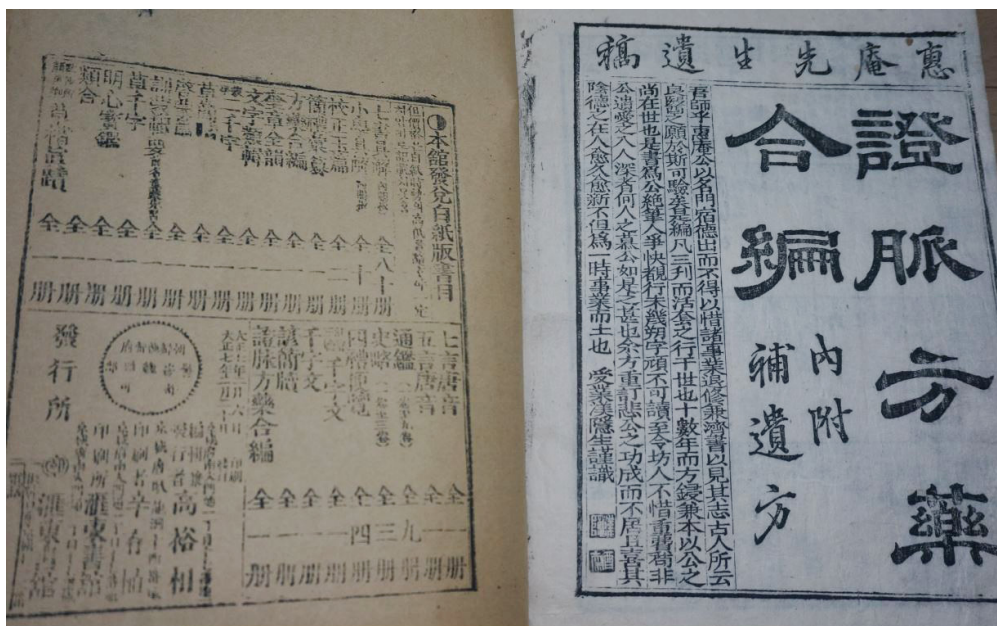
내용상 중정류 방약합편에 속하며 판권지가 있다. 판권지에 따르면 1917년(大正 6) 某월 22일⁵²⁾

51) 사진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의학부 제공.

52) 이민희, 「백두옹과 한남서림 연구」 (서울: 역락, 2013), 64, 105.

경성 韓南書林에서 간행되었다. 발행자는 白斗鏞이고 인쇄자는 金鉉秀이다. 刊記는 “乙酉中秋美洞新刊”으로 京3본에 이어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4)의 책판을 재활용하였다. 영남대 도서관에 소장(청구기호: Y1033442)되어 있으며 개인 소장도 흔하다.

4.5 匯東書館 刊本 『證脈方藥合編』(京5)



<사진 17> 匯東書館 刊本 『證脈方藥合編』(개인 소장) 판권지와 표제지

내용상 증맥류 방약합편에 속하며 판권지가 있다. 소장본의 표지에는 제침 흔적이 없으나, 제침 유무는 불확실하다. 판권지에 따르면 1918년(大正 7) 2월 8일 경성 匯東書館에서 간행되었다. 판권자는 高裕相이고, 인쇄자는 辛有相이다. 표제지는 마지막 면에 수록되어 판권지 바로 앞인데, 『石隱補遺方』 일부와 『輸症霍亂自辛巳以後集驗方』이 탈락되면서 刊記는 없다. 탈락된 이유는 匯東書館에서 간행하기 이전에 해당 면의 책판이 소실된 까닭으로 추정된다. 내용을 검토하면 『活套鍼線』 마지막 장에 “新增補遺十九方” 기록이 없으면서 『石隱補遺方』 앞에 간기가 없으므로 治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6C)과 같은 책판이다. 표제지의 경우 기존 治洞판과 달리 새롭게 판각하였다. 이도 책판의 소실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대, 전남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개인 소장도 흔하다. 경판 목판으로 마지막 간본이다.

4.6 일제강점기 경판 목판본 특징

일제강점기 경판 목판본은 5종이다. 새롭게 판각된 판본은 없으며 모두 기존 책판을 재활용하여 간인되었다. 이미 신연활자 인쇄가 보급된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전통 목판 방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적어진 탓이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경판본은 목판본보다는 신연활자본 간행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방약합편 경판본은 1910년대 간본을 마지막으로 신연활자본이 목판본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5종 중에 증맥류가 3종, 중정류가 2종이 간행되었다. 美洞新刊 계열에서 중정류가 증맥류보다 더 후기까지 간행되었음이 재차 확인된다.

<표 4> 일제강점기 경판 「方藥合編」 목판본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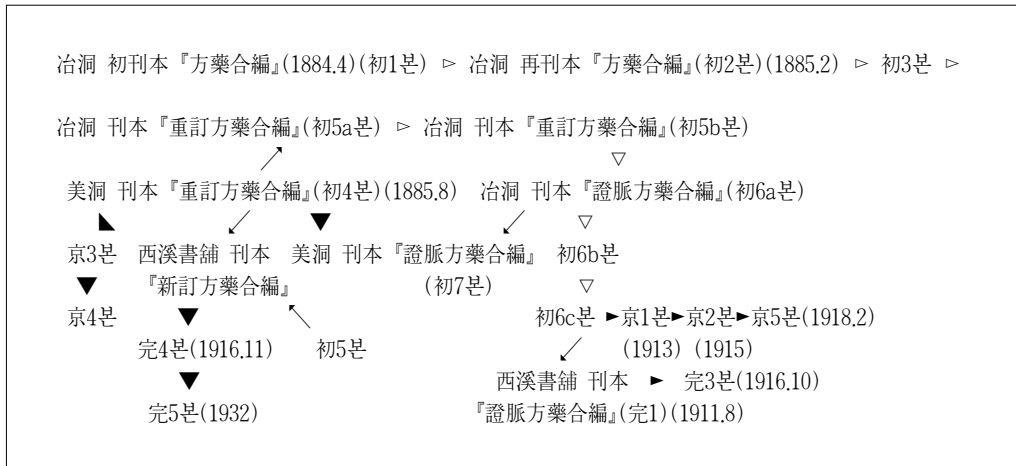
판본명	간행시기	刊記	간행처	저작자
紙物書冊舖 刊本 「證脈方藥合編」	1913.	乙酉中秋治洞新刊 (推定)	紙物書冊舖	李鍾星
東美書市 刊本 「證脈方藥合編」	1915.3.	乙酉中秋治洞新刊	東美書市	李容漢
太華書館 刊本 「重訂方藥合編」	1915.12.	乙酉中秋美洞新刊	太華書館	姜夏馨
韓南書林 刊本 「重訂方藥合編」	1917.	乙酉中秋美洞新刊	韓南書林	白斗鏞
匯東書館 刊本 「證脈方藥合編」	1918.2.	없음	匯東書館	高裕相

5. 결 론

「方藥合編」은 1884년 초간 된 이후 현재까지 주요한 한의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간행처에서 수정판이 간행되면서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며 특히 목판본의 경우 판권지가 없는 경우가 다수라 간행시기 파악이 쉽지 않았다. 본고는 「方藥合編」 목판본을 전수 조사하여 판본의 선후와 전승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통해 「方藥合編」 증보작업의 시간에 따른 방향성과 강조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방각본 의서가 보급 간행이 이루어지는 한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조사된 「方藥合編」 목판본은 총 20종으로 경판본이 15종, 완판본이 5종이다. 이들 판본은 대다수가 補刻을 거치거나 단순히 판권지만을 바꾸어 기존 책판을 재활용하여 간행하였다. 기본이 되는 책판은 4종인데 경판과 완판이 각각 2종이다. 이들 4종은 治洞書房의 治洞 初刊本 「方藥合編」(初1), 美洞書房의 「重訂方藥合編」(初4), 西溪書舖의 「證脈方藥合編」(完1), 「新訂方藥合編」(完2)이다.

<표 5> 「方藥合編」 목판본 전체의 전승이력⁵³⁾



주요한 판본으로는 초간본, 治洞 三刊本 「方藥合編」(初3), 증정류의 효시인 美洞 刊本 「重訂方藥合編」(初4), 증맥류의 효시인 治洞 刊本 「證脈方藥合編」(初6A), 완판본인 西溪書舖 刊本 「新訂方藥合編」(完2)을 들 수 있다. 「方藥合編」의 판본은 美洞에서 간행된 「重訂方藥合編」과 治洞에서 간행된 「證脈方藥合編」의 두 갈래로 널리 보급되었고, 西溪書舖에서 간행된 「新訂方藥合編」은 두 판본을 종합하는 성격이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미 「方藥合編」의 주요한 판본학적 성취는 이루어졌고, 이후 완판본은 증맥류 방약합편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方藥合編」의 목판본은 경성을 중심으로 1910년대까지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차차 신연활자본으로 대체되었다. 목판본 「方藥合編」에 대한 서지 연구를 토대로 각 신연활자본의 전승 등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이런 서지학적 연구들이 전제된다면 이상화의 「增補辨證方藥合編」(1927년 초간)처럼 원저에 자신만의 이론과 경험을 덧붙여 成書된 책들이 전거문헌으로 삼은 「方藥合編」 판본이 무엇인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53) 표에서 “▷” 표시는 기존 책판을 보각한 관계, “→” 표시는 내용에 영향을 준 관계, “▶” 표시는 동일책판인데 간행처가 달라진 관계이다.

<참고문헌>

- 강혜영. “20세기 전반의 전주지방 서적 발행 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1집(2008. 12). 83-119.
- 고유상. 『증맥방약합편』. 경성: 회동서관, 1918.
- 남권희. “목판과 지식문화.”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파주: 글항아리, 2014. 11-82.
-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서울: 학문사, 1988.
- 박선동. “「방약합편」에서 나타난 전사과정에 따른 문제점분석 1.”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제5권 1호(1997). 33-49.
- 박선동. “「방약합편」에서 나타난 전사과정에 따른 문제점분석 2.”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제6권 1호(1998). 63-85.
- 백두용. 『중정방약합편』. 경성: 한남서림, 1917.
- 안상우, 김남일, 차웅석, 오준호, 권오민 외 4인. 『증보판 해외에서 찾아낸 우리 옛 의학책』.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 양승곤. 『신정방약합편』. 전주: 양책방, 1932.
- 양진태. 『증맥방약합편』. 전주: 서계서포, 1916.
- 오병진. “「방약합편」 중 활투침선에 관한 판본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8.
- 이민희. 『백두용과 한남서림 연구』. 서울: 역락, 2013.
- 전주문화재단. 『완판본과 사람들』. 전주: 전주문화재단, 2012.
- 최채기. 『고전적정리입문』.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1.
- 탁종길. 『증맥방약합편』. 전주: 서계서포, 1911.
- 탁종길. 『신정방약합편』. 전주: 서계서포, 1911.
- 현공림. 『중정방약합편』. 한양: 미동서방, 1885.
- 현공림. 『중정방약합편』. 한양: 미동서방, 未詳.
- 현공림. 『중정방약합편』. 한양: 야동서방, 未詳.
- 황도연. 『증맥방약합편』. 한양: 야동서방, 1887.

[웹사이트]

- 민족의학신문사, 민족의학신문. <<http://www.mjmedi.com>>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DB. <<http://kostma.korea.ac.kr>>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DB. <<http://www.nl.go.kr/korcis>>
-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한글박물관 DB. <<http://Archives.hangeul.go.kr>>

